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1 ‘신기촌 사람들’					
구술자명	유용호	면담자	조영숙, 이경희			
면담장소	영아트 신기시장점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8년 11월 8일(목) 오후1시30분	회차	1	시간	10분 52초	
자료번호	MichuholICA-07-00001164					
구술 개요	96년부터 영업함. 재래시장 중 유동인구가 많은 것 같아 신기시장으로 옴. 오래 거주하거나 타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음. 개업 초기는 아이들 관련 업종이 많았음. 요즘은 연세 있는 분들을 위한 가게가 주가 됨. 주 고객층은 엄마들로 최근에는 실익을 더 추구함. 3대째 주변에 거주하며 가게를 찾는 손님이 계심. 손님들이 가게를 지금 같이 기억해주기를 바램. 주차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함.					
주요 색인어	재래시장, 상인회, 재개발, 아이들, 인터넷, 엄마, 체인점, 3대, 주차, 마트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소개			00:00:00~ 00:01:08	▷ 음성파일		
- 96년 12월부터 20년 정도 영업함. - 인천에 가게 자리를 알아보던 중 재래시장 가운데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것 같아 오게 됨.						
2. 20년 동안의 변화			00:01:09~ 00:06:01			
- 다른 지역에 비해 남구(미추홀구)가 발전하는 속도가 늦는 편임. 반면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임. - 상인회가 있기는 하나 미흡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과 결속이 잘 됨. 별도의 주민 모임은 없음. -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 많고, 타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음. - 재개발 이후에 빠져나간 인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함. - 개업 초기에는 아이들 관련 업종이 많았음. 요즘에는 연세 있는 분들을 위한 가게들이 위주가 됨. - 인터넷 접근이 쉬워지면서 손님들이 유대 관계보다 실익을 찾는 분위기임. 주고객층은 엄마들임. - 원래 영아트 체인점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본사가 없어짐.						
3. 기억에 남는 손님						00:06:02~ 00:06:40
- 3대째 오는 손님이 계심. - 처음에 데려왔던 아기가 자라 자신의 아이와 함께 가게에 옴.						

4. 앞으로의 바람	00:07:50~ 00:10:52	
- 가게에 왔던 고객들이 지금 같이 기억해주기를 바람. - 아이들이 자라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시 가게를 방문할 때가 좋음. - 주차 시설을 만들거나 시장 근처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주차 문제 해결이 필요함. - 마트와 경쟁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주차 문제임. - 마트와 달리 시장에서는 손님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장점임.		